

韓國 降神巫에게 守護神靈으로서 내려온 死靈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전라남도 진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川上 新二(가와가미 신지)*

1. 머리말

샤머니즘은 영적 존재나 영계와 직접 교류해서 주술, 종교적인 역할을 다하는 직능자(職能者)인 샤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형태이고 샤만이 영적 존재나 영계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에는 샤만 자신이 자기의 영혼을 영계로 보내는 탈혼형(脫魂型)과 영적 존재를 샤만이 자기 몸에 초래하는 빙의형(憑依型)이 있는데 빙의형은 영적 존재가 샤만의 몸 속에 들어가 샤만이 영적 존재 자신으로서 행동하는 영매형과 영적 존재가 샤만의 몸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샤만은 자기 몸 주위에 있는 영적 존재한테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행동하는 예언자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佐佐木宏幹 1996: 127-131).

근년에 보이는 샤마니즘 연구 동향의 하나로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샤마니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샤마니즘을 전통적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도시에서 보면 주

*駐中華人民共和國 日本國大使館 專門調査員

변 지역이 되는 농촌 등 이른바 지방사회(전통사회)에서 보이는 샤머니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1980년대 후반기부터 도시에서 활동하는 샤만의 특징을 검토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사사키(佐佐木宏幹)는 동경(東京)을 대표로 하는 일본 대도시의 샤머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징을 지적했다. 즉 대도시에는 예언자형 샤만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수호 신령의 종류나 제단(祭壇)의 구성도 다종 다양하다. 대도시의 샤머니즘에서 수호신령이나 제단 구성에 있어서 다종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샤만들의 종교관, 우주관이 각 샤만마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샤만들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대도시로 이사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대도시의 샤머니즘은 일본 각지의 샤머니즘의 다양한 복합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1996: 131-133).

사토(佐藤憲昭)는 일본의 도시를 대도시(인구100만 이상), 중도시(인구 100만 미만), 소도시(인구 10만 미만)로 나눈 다음에 사사키가 지적한 일본 대도시 샤머니즘의 특징은 중도시 샤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소도시 샤만의 양상은 지방 사회의 샤만과 같아서 도시 샤머니즘의 특징은 소도시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988: 267-292).

그런데 사사키는 대도시의 샤머니즘은 모두가 동경처럼 다종다양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臺北), 타이난(臺南) 등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화인(華人)의 샤만은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샤만과 같은 전통적인 화인 샤머니즘의 양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96: 135-136). 대도시의 샤만이라고 해도 각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한국에 있어서는 사회의 발전, 변모에 따라서 한국 샤머니즘도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시의 샤머니즘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최길성은 도시에서는 경제적인 번영을 기원해서 채수굿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하고(1984: 273) 아울러 서울에서는 이른바 미신 업자(迷信業者)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특히 서울 주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서울 여러 곳에서 대규모의 샤만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1980: 210-225). 또 켄달(L. Kendall)은 1990년대에 서울에서 실시한 조사에 입각해 굿은 호경기 시기 뿐만 아니라 불경기 시기에도 관찰되었는데 굿의 의뢰인은 성공과 부유의 변동이 심한 “소 부르주아”(petit bourgeois)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굿은 중소기업가의 성공과 좌절에 관련된다고 했다(1995: 6-8).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샤만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도시 샤만의 예로서 서울 샤만의 사례를, 지방사회(전통사회) 샤만의 사례로서 전라남도 진도 샤만의 예를 소개하면서 양지역의 샤만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겠다. 그리고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샤만의 수호 신령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겠다.

2. 문제점과 고찰의 입장

1) 강신무에 대해서

최길성은 한국 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한반도 중부로부터 북쪽 지방에서는 이른바 강신무라는 샤만의 유형을 무당이라고 하고 남부 지방인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각 지방에서는 이른바 세습무를 단골 혹은 무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로부터 북쪽 지방에 있는 샤만에 해당하는 직능자를 남부 지방에서는 점쟁이라고 부른다. 한편 중부 및 북부 지방에서 보이는 흔히 말하는 선무당은 무의(巫儀)인 굿을 하지 못하고 간단히 점을 치는 일만 하

기 때문에 점쟁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점쟁이는 선무당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굿을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남부 지방에서는 샤만인 점쟁이와 무의를 중심으로 무업(巫業)을 하는 단골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1978: 14-15).

본고에서 검토할 진도 샤만도 점쟁이라고 불리고 또 보살, 명두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점쟁이, 보살, 명두 등은 한국 무속에서는 강신무에 속한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 및 북부 지방에서는 강신무에 속하는 선무당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도 점쟁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본고에서 검토할 서울 샤만도 점쟁이라고 불리고 또 보살, 명두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러한 점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우는 강신무는 지금까지 한국 무속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무속 연구에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는 가무에 능숙한 무당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소위 말하는 선무당으로 간주되는 점쟁이나 보살이라고 불리는 강신무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 같다. 진도 경우에서도 한반도 남부 지역 무의 주류로 간주되는 세습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고 점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는 강신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강신무들 사이에서도 명두 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조흥윤에 의하면 명두는 가장 낮은 무당 계급이고 한국 무에서 매우 천하게 여겨져 다른 계급에 속하는 무당들이 이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는다고 한다(1997: 188).

이와 같이 한국 무의 주류로 간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점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는 강신무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가무에 능숙한 강신무나 세습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한국 무속 전체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점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는 강신무를 연구 대

상으로 삼는 것도 의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무속의 신령에 대해서

강신무의 성무(成巫)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령이 내려오는 것이다. 아무리 무가 되기를 원한다 해도 신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무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한번 신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은 무가 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신령이 시킨 병이라고 알아차린 후에도 내려온 신령을 받아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병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조차 있다고 한다. 신령을 받아드리면 병은 낫는다. 강신무란 신령이 내려와서 성무한 무를 말한다면 어떤 신령이 내려왔느냐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각 지역 강신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 무속의 신령에 관해서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한국 무속의 신령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태곤은 무속의 신령을 굿을 실시할 때 직접 모셔지는 신, 무신도에다 그려진 신, 각지 신당에서 모셔지는 신, 무속에서 신앙되는 가신(家神)이라는 네 가지 종류로 정리했다(1983: 231). 또 조홍윤은 무의 계급에 따라 그에 맞는 위계의 신령이 수호 신령이 된다고 해서 무의 계급과 신령의 위계의 관련성을 소개하면서 무속의 신령을 고찰했다(1997: 180-189).

그러나 진도 강신무에게 수호 신령으로 내려오는 것은 쌍계(雙系)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식 등 가까운 친족의 사령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安田ひろみ 1997: 43). 이러한 수호 신령으로 내려온 사령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중반에 걸쳐서 실시된 민속 조사에 관한 몇 가지 보고서에서 <표 1>로 정리한 것과 같이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

〈표 1〉 조사보고서에서 보이는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

	나이	성별	출신지	성무지	현재소재지	사령
a	45	남	대전시?	충청북도 충주	충청북도 청주시	증조부
b	31	남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충북 청주	조부
c	45	남	강원도 원주	충북 단양	충북 단양	아버지
d	50	남	충북 청원	충북 청원?	충북 청주	조부
e	38	남	대전	대전	대전	조부
f	38	여	?	대전?	대전	친정 아버지
g	90	여	?	?	전남 구례	이모
h	56	여	경기도 수원	?	경기 화성	남편의 선처
i	51	여	강원도 명주	?	강원 강릉	어머니
j	51	여	경남 진주	?	경남 사천	친정 아버지
k	47	여	경남	경남 양산군?	서울 동대문구	언니의 딸
l	53	여	서울 원효로	서울?	서울 영등포구	고모

주) a,b,c,d: 『한국 종합민속조사 보고(충청북도편)』(1976년 12월 간행)

e,f: 『한국 종합민속조사보고(충청남도편)』(1975년 12월 간행)

g: 『한국 종합 민속 조사 보고(전라남도편)』(1969년 8월 간행)

h,i,j,k,l: 김태곤 『한국무속연구』(1966년부터 70년에 걸쳐서 실시한 조사)

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다.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이며 한국 무속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한다.

3) 수호 신령으로서의 사령에 대해서

필자가 서울에서 만났던 어떤 강신무에 의하면 내려오는 신령을 천신(天神)과 조상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천신이란 인간 세계와 다른 세계, 예를 들어 천계(天界) 등에 있는 신들이며 옥황상제, 일월성신, 용신, 산신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강신무의 조상

이 수호 신령으로 내려온 경우 그것을 조상신이라고 한다. 같은 강신 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신은 천지 신명(天地 神明)으로부터 산 이나 강의 신까지 여러 신이 있는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신은 조상 뿐이다. 돌아가신 조상이 저승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천지 신명의 줄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다 조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신무들은 내려온 여러 조상들은 각각 옥황상제, 일월성신, 칠성, 불사제석, 백마신장, 천용장군 등 소위 말하는 천신의 영을 받고 내려왔다고 해서 각 조상신을 그 구체적인 신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강신무들은 어렸을 때 사망한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시가 쪽 및 친척 쪽의 사망한 사람을 모두 다 조상이라고 표현한다. 서울에는 천신을 수호 신령으로 모시는 강신무가 있는 한편, 조상신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강신무도 많다.

김태곤은 강신무에게 내려오는 신령을 일반적인 자연신(自然神, 예를 들어 천신, 옥황상제, 산신, 일월성신, 용신 등) 과 인간의 사령 특히 혈연 관계가 있는 어린 아이의 사령으로 나누고 무당형의 무에게는 전자가, 명두형의 무에게는 후자가 내려온다고 했다(1981: 145-146). 필자가 만났던 서울 강신무가 말하는 천신은 김태곤이 지적하는 자연신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상신에 해당하는 신령을 김태곤의 지적 중에서 찾아낼 수 없다.

김태곤에 의하면 명두형의 무에게는 인간의 사령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혈연 관계가 있는 어린 아이의 사령이라고 한다. 서울 강신무가 말하는 조상신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령을 포함한다. 즉 조상신의 범위 안에는 강신무의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이 포함된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서울 강신무들은 내려온 신령을 김태곤이 말하는 자연신 이름으로 부르면서도 실은 그 신령들은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망한 사람이 저승에서 수행하고 자연신의 영을 받고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강신무에게 내려오는 조상은 살아 있을 때 역시 강신무로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필자가 답사한 바에 의하면 강신무들에게 내려온 조상신 모두가 살아 있을 때 강신무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강신무 한 사람에게는 여러 조상신이 내려오는데 그 조상신들이 살아 있을 때 무업을 하고 있었다는 예는 오히려 극히 드물다.

한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도에서 활동하는 강신무들에 있어서도 수호 신령으로서 내려오는 신령은 친족의 사령이다. 진도 경우도 그 사령들은 강신무의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신무들은 내려온 사령을 조상이라고 표현한다. 진도 강신무들은 명두라고도 불리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명두형의 무에게는 혈연관계가 있는 어린 아이의 사령이 내려온다는 견해가 있지만 필자는 답사를 통해서 명두라고도 불리는 진도 강신무에게는 혈연 관계가 있는 어린 아이의 사령 이외에도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고찰의 입장

이상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실시한 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점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우는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초점을 맞추어 대도시인 서울에 거주하는 강신무와 지방 사회(전통 사회)의 대표로서 전라남도 진도에 거주하는 강신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양지역의 강신무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겠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실시한 답사에서 얻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고찰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앞으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자료에 입각한 기초적인 고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무속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 각 지역의 무속에 대

한 비교 연구는 실시되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각 지역 무속의 전통적인 양상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그리고 종래의 무속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식의 무속 요소를 가진 무를 서울형 무로, 전라도식 요소를 가진 무를 전라도형 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무라고 해도 전라도식 요소를 가진 무라면 전라도형의 무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 대도시와 지방사회(전통사회)의 무속 상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강신무를 서울 강신무, 진도에서 살고 있는 강신무를 진도 강신무로 하겠다.

3. 사례

1) 서울 강신무

필자는 1988년 이후 단속적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강신무에 대한 답사를 실시해 왔는데 거기서 얻은 서울 강신무에게 수호 신령으로 내려온 사령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소개하는 강신무는 모두 다 여성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점쟁이, 보살 등으로 불리우는 서울 강신무들은 돌아가신 조상이 저승에서 수행을 쌓아 천신의 줄에 들어가 천신의 영을 받고 내려온다고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에서는 괘호 안에 신 이름을 제시했는데 강신무들은 내려온 사령이 그 괘호 안에 제시된 천신의 줄에 들어가 내려 왔다고 한다.

〈A〉 60세 전반. 서울 출신이고 현재 성북구 돈암동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7년 현재). 1970년대 후반에 신령이 내려와서 무가 되었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1974년에 12세 때 사망한 외아들이다. 내림곳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기도하러 올라간 산은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다.

〈B〉 46세.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고 지금 도봉구 도봉동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7년 현재). 결혼한 후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녀가 29세 때 남편이 사망했고 35세 때부터 장사가 잘 되지 못했고 다음해 장사를 그만두었다. 무녀들은 그녀를 보고 신령을 모셔야 한다고들 했다. 1987년 36세 때 충청남도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했다. 그녀에게는 시가쪽의 3대 조부(글문도사 할아버지), 친정 쪽의 조모(불사 할머니), 5세 때 사망한 언니(용궁 선녀) 등이 내려왔다.

〈C〉 46세. 서울 출신이고 지금 구로구 향동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7년 현재). 결혼한 후 1992년 41세 때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리고 그 해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뒷산에서 내림굿을 했다. 그녀에게는 시가 쪽의 3대 조부(글문도사 할아버지)와 남편의 조모(서낭 할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 등이 내려왔다.

〈D〉 61세. 경상북도 금릉 출신이고 지금 성동구 금호동에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7년 현재). 결혼한 후 경상북도 선산에서 살았을 때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렸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해 왔는데 1970년 34세 때 서울에서 내림굿을 했다. 그녀에게는 시가 쪽에서 10대 조부(도사 할아버지), 3대 조부(재수대감), 3대 조모(제석 할머니), 남편의 어머니(칠성불사 할머니), 남편의 여동생(대신 할머니) 등이, 친정 쪽에서는 5대 조부(일월천신), 5대 조부(옥황상제), 조부(장군신장), 어머니(칠성대신 할머니), 오빠(신장) 등이 내려왔다. 그리고 3세 때 사망한 그녀의 둘째 아들(승강동자)도 내려왔다.

〈E〉 54세.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고 지금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9년 현재).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았을 때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렸고 1986년 41세 때 서울 남산에서 내림굿을 했다. 그녀에게는 시가 쪽에서 5대 조부(장군신), 3대 조부(의술도사 할아버지), 남편의 형(조상동자) 등이, 친정 쪽에서는 3대 조부(장군), 조모(불사 할머니), 어머니(불사대신 할머니), 언니(선녀) 등이 내려왔다.

〈F〉 44세. 전라남도 장흥 출신이고 지금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9년 현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고모 집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병에 걸렸다. 23세 때 결혼했고 그 후부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말이 나오게 됐고 다들 그녀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했다. 43세 때 서울 관악산에서 내림굿을 했다. 1999년에 이혼했다. 그녀에게는 시가 쪽에서 남편의 어머니(대신 할머니)가, 친정쪽에서는 7대 조부(중국의 장군), 조모(대신 할머니), 외조모(불사), 아버지(주장), 어머니(대신 할머니), 언니(선녀), 언니(선녀) 등이 내려왔다.

〈G〉 68세.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부산으로 피난했고 그 후 서울에 왔다. 지금 서대문구의 국철 신촌역 근처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9년 현재).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경험은 없으나 집안에 문제가 많았고 너무 가난했다. 16년 전에 처음으로 신령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말이 솟아 나왔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시가 쪽에서는 7대 조부(천룡장군), 남편(오방신장) 등이고 친정 쪽에서는 7대 조부(백마장군), 5대조부(산신), 3대 조부(약사도사), 아버지(산신육갑대장군신) 등이다. 그리고 5세 때 사망한 그녀의 딸(선녀)도 내려왔다.

〈H〉 51세. 충청남도 당진 출신이고 지금 서대문구의 지하철 이대앞역 근처에서 살고 있다(나이 및 거주지는 1999년 현재). 24세 때 결혼했지만 32세 때 이혼했다. 그 후 머리의 병이나 배의 병이 심했고 너무 가난했다. 37세 때 서울 북한산에서 내림굿을 했다. 그 후 재혼했다. 그녀에게는 친정 쪽의 7대 조부(선관도사), 조모(불사), 아버지(백마신장), 어머니(대신 할머니), 사촌(4세 때 사망했음, 동자) 등이 내려왔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가운데 A는 자기의 아들이 내려온 사례이지만 그 이외는 모두가 어린 아이도 포함해서 강신무의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이 저승에서 수행을 쌓아서 어떤 천신의 줄에 들어가서 내

려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령들은 내림굿 때만 무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강신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천신의 영을 받고 천신의 줄에 들어선 조상이 내려오는 것은 내림굿 때만이 아니다. 내림굿을 하고 무가 된 후에도 항상 새로운 조상이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례에서 소개한 D 경우 남편의 어머니가 칠성불사 할머니로서 내려온 것은 내림굿을 하고 무가 된 후이며 D가 내림굿을 한 1970년에는 남편의 어머니는 아직 건재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가 D에게 왜 조상들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기간을 두고 내려오느냐고 물어 봤을 때 그녀는 천신의 영을 받고 천신의 줄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간이 각 조상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내려온 사령이 어느 때 갑자기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령을 모시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말들에 따르면 강신무 한 사람이 모시는 사령의 수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 진도 강신무

다음에 진도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진도에는 30명 내지 40명의 강신무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박주엄·정종수 1988: 164-166; 土佐昌樹 1989: 390) 필자가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실시한 답사에서 얻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나이 및 거주지는 모두 1997년 현재). 여기서 소개하는 강신무는 모두 다 여성이다.

〈I〉 64세. 진도 고군면 출신이고 지금 의신면에서 살고 있다. 결혼한 후 고군면에서 살았을 때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렸다. 부산에 있는 언니도 신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36세 때 거기에 가서 내림굿을 했다. 그녀에게 내려온 것은 시가 쪽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선처(先妻), 친정 쪽에서는 아버지, 아버지와 그의 선처 사이에서 태어난 오

빠(8세 때 사망했음), 오빠(4세 때 사망했음) 사촌 등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사망한 그녀의 딸도 내려왔다.

〈J〉 39세. 진도 출신이고 결혼한 후 진도 지산면에서 살았을 때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렸고 31세 때 내림굿을 했다. 내림굿을 해 준 사람은 다음에 소개하는 K이다. 지금은 J는 진도읍에서 집을 하나 구입해서 점을 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시가 쪽에서 남편의 아버지(선관도사 할아버지), 남편의 어머니(삼신제왕 할머니), 남편의 백부(16세 때 사망했음, 동자), 사후 결혼(死後結婚) 시킨 그의 처 등이고 친정 쪽에서는 어머니(명두 선생), 오빠(25세 때 사망했음, 주장대신), 여동생(명두) 등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사망한 그녀의 둘째 아들(동자)도 내려왔다.

〈K〉 57세. 진도 지산면 출신이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 결혼한 후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렸고 32세 때 진도에서 내림굿을 했다. 내림굿을 해 준 사람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당시는 진도에서 거주하던 강신무(여성)이었다. K의 남편의 아버지(고인)는 진도에서 유명한 독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의 아버지가 쓰던 경문집이 많이 남아 있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시가 쪽에서 3대 조모(삼신제왕), 남편의 조부(주장대신), 남편의 아버지(선관도사), 남편의 사촌(동자), 남편의 동생(동자), 남편의 여동생의 딸(동녀) 등이고 친정 쪽에서는 조부, 어머니, 오빠 등이다.

〈L〉 73세. 진도 조도면 출신이고 지금 진도읍에서 살고 있다. 남편의 어머니는 굿이 있을 때마다 사령을 내리게 하는 대를 잡는 일을 맡았는데 L에게 자주 자신이 죽은 후에는 L이 신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61세 때 신령을 모셨다. 내림굿은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등에서 했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시가 쪽에서 남편의 조부의 두 번째 처, 남편의 아버지(신장), 남편의 어머니, 남편(대주대감), 남편의 동생(74세 때 사망했음, 동자), 남편의 여동생 등이고 친정 쪽에서는 의숙부, 오빠의 아들(22세 때 사망했음) 등이다. 그리고 4세 때 사

망한 그녀의 딸도 내려왔다.

〈M〉 49세. 진도읍 출신이다. 제주도에 가서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진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서 서울로 이사했다. 36세 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서울 과천 관악산 산신을 받고 옥황상제의 문을 열고 백마장군이 온다고 외쳐서 신령을 받았다. 신령을 받은 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는 무녀를 신의 선생으로 삼고 신령을 모시는 방법이나 굿을 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그 후 진도로 돌아왔다. 진도에 돌아온 후에 내림굿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사는 신의 선생이 해 주었다. 지금 M은 진도읍에서 살고 있다. 그녀에게 내려온 신령은 시가 쪽에서 4대 조모(불사 할머니), 3대 조모(제석 할머니), 남편의 조부(나무불사), 남편의 조모(불사 할머니), 남편의 조부의 첫 번째 처(제왕신), 남편의 어머니(불사 할머니), 남편의 백부(삼마도령), 남편의 숙부(법문도사), 남편의 형(별상도령), 남편의 누나 등이고 친정 쪽에서는 조부(굴문도사), 외조모, 조부의 사촌, 아버지(백마신장), 두 번째 숙부(오방신장), 세 번째 숙부(장부 신장), 네 번째 숙부(대감신장) 등이다.

4. 약간의 고찰

1) 서울과 진도의 비교

앞에서 소개한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관한 서울과 진도의 사례를 각각 시가 쪽 친정쪽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 〈표 2〉와 〈표 3〉이다. 서울과 진도의 사례를 비교하면 서울이나 진도나 다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이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강신무와 진도 강신무 사이에는 상이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진도 강신무 경우 내려온 사령 가운데 가장 먼 세대의 사령은

〈표 2〉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

	시가쪽	친정쪽
고조부모 이상의 세대	10대 조부 1 7대 조부 1 5대 조부 1	7대 조부 3 5대 조부 3
증조부모의 세대	3대 조부 4 3대 조모 1	3대 조부 2
조부모의 세대	조모 1	조부 1 조모 4 외조모 1
부모의 세대	어머니 2	아버지 4 어머니 4
자기의 세대	남편 1 남편의 형제 1 남편의 자매 1	형제 1 자매 4 사촌 1
자식의 세대	아들 2 딸 1	
계	17	28

4대조인데 그것에 비해 서울 경우는 5대조, 7대조, 10대조 등과 같이 진도 강신무 보다 훨씬 먼 세대의 사령도 내려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도 경우 조부모의 세대보다 아랫 세대에 있어서 조부의 첫 번째 처나 두 번째 처, 아버지의 선처, 백부숙부나 그들의 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령들, 즉 많은 이른바 방계의 사령들이 내려왔는데 서울 경우 그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된다. 한편 자기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형제, 자매, 사촌 등 그리고 자기 세대보다

〈표 3〉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

	시가쪽	친정쪽
고조부모의 세대	4대 조모 1	
증조부모의 세대	3대 조모 2	
조부모의 세대	조부 2 조모 1 조부의 첫 번째 처 1 조부의 두 번째 처 1	조부 2 외조모 1 조부의 사촌 1
부모의 세대	아버지 3 어머니 3 아버지의 선처 1 백부숙부 3 백부 숙부의 처 1	아버지 2 어머니 2 백부숙부 4
자기의 세대	남편 1 남편의 형제 3 남편의 자매 2 남편의 사촌 1	형제 5 자매 1 사촌 1
자식의 세대	아들 1 딸 2 조카 딸 1	조카 1
계	30	20

아랫 세대에 속하는 자식 등이 내려왔다는 것은 진도에서나 서울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진도 강신무 경우 내려온 사령 중에서 가장 먼 세대의 사령이 4대조 사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4대 조모가 내려왔다는 강신무는 M인데 그녀에게는 3대 조모도 내려왔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표 4〉 진도 강신무가 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진 사령

	시가쪽	친정쪽
고조부모의 세대		
증조부모의 세대		
조부모의 세대	조부 11 조모 11 조부의 첫 번째 처 1 조부의 형제 1 조부의 형제의 처 1	조부 1 조모 1 외조부 1 외조모 1
부모의 세대	아버지 16 어머니 12 아버지의 첫 번째 처 4 백부숙부 5 백부숙부의 처 5	아버지 4 어머니 4 아버지의 첫 번째 처 3
자기의 세대	남편 8 남편의 형제 8 남편의 형제의 처 4	
자식의 세대	아들 2 며느리 2 조카 1	
계	92	15

같이 M은 진도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하고 거기서 살았을 때 신령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녀는 서울 강신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성무한 M을 제외하면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성무한 강신무 경우 조부모 세대보다 아랫 세대의 사령이 내려왔다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서울 강신무와의 차이는 더욱 현저해

진다. 또 M 이외에 K가 3대 조모 한 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성무한 강신무에 있어서 3대조 사령이 내려왔다는 사례는 이것 하나뿐이다. 진도 강신무 경우 2대조 보다 아랫 세대의 사령이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 강신무에게는 3대 조보다 윗세대인 비교적 먼 세대의 사령도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사령의 대수에 관해서는 서울이 진도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려온 방계의 사령에 관해서는 진도가 서울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 강신무 경우 내려온 사령들을 각각 옥황상제, 일월천신, 칠성, 불사, 제석, 백마신장, 천룡장군 등 소위 말하는 천신의 영을 받고 천신의 줄에 들어가서 내려왔다고 해서 사령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진도 강신무 경우 내려온 사령에게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리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사례에서 소개한 진도 강신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신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는 강신무도 있고 내려온 사령에게 신 이름을 붙이는 강신무가 있다해도 선관도사, 삼신제왕, 주장대신 등 두서너개의 이름만을 말하는 데 그치거나 동자, 면두 등 일반적인 이름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서울에서 성무한 M 경우 진도에서 성무한 강신무들과 달리 내려온 사령들에게 제석, 불사, 백마신장, 오방신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M과 서울 강신무와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관해서 서울과 진도의 상이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강신무에게는 3대조보다 윗세대인 비교적 먼 세대의 사령도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사령의 세대에 관해서는 서울이 진도보다 다양하다. 둘째, 내려온 이른바 방계의 사령에 관해서는 진도가 서울보다 다양하다. 즉 진도 강신무에게는 조부의 첫 번째 처, 조부의 두 번째 처, 조부의 사촌, 아버지의 선

처, 백부숙부나 그들의 처 등도 내려왔다. 셋째, 서울 강신무 사이에서는 내려온 사령에게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진도 강신무에 있어서는 사령에게 신 이름을 붙이는 일은 서울 강신무만큼 현저하지 않다.

2) 내려오는 사령의 배경

다음으로 한국 강신무에게 사령이 수호 신령으로 내려오는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수호 신령으로 내려온 사령을 서울 강신무는 조상신이라고 부르고 진도 강신무는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따라서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을 한국 무속에서 다루는 조상과 관련시켜서 고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교에서 다루는 조상과 별도로 한국 무속에서 다루는 조상이란 어떤 것인가. 최길성은 무속에서의 조상 숭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부계 사회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무속 신앙이 여성의 신앙이라고 느낄 정도이다. 그리고 부계 뿐만 아니라 양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지나치게 부계 혈연만을 강조하는 유교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1991: 270). 또 최길성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해남읍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셋김굿에서는 부계 직계 조상이 셋김의 대상이 되고 부계 방계나 모계, 처계의 조상도 셋김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대상이어서 거기서는 부계 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것과 아울러 이차적인 대상으로서 부계 방계나 모계, 처계의 조상도 다루는 점에서 유교가 강조하는 부계 주위의 후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1991: 222-223).

무속이 다루는 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이 임돈희에 의한 연구이다. 임돈희는 경기도 지역의 조상거리에서 강신무에게 지퍼서 말을 하는 조상(사령)에 대해 고찰했다.

무속의 조상거리에서는 굿을 의뢰한 집안의 사령들이 강신무에게

지퍼서 강신무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임돈회에 의하면 시가 쪽의 부계 직계 사령뿐만 아니라 시가 쪽의 방계 사령이나 처의 친정 쪽 사령 그리고 자식들도 강신무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다. 또 조상거리에서 강신무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령의 대수는 아주 낮다고 한다. 즉 고조나 증조처럼 윗세대의 사령이 아니라 조부, 조모와 같은 낮은 세대의 사령이 강신무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조상거리에서 4대조나 3대조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1988: 144-146).

이상 지적된 한국 무속에서 다루는 조상의 특징과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을 비교하겠다. 경기도 지역의 조상거리에 나타나는 사령의 범위에는 시가 쪽의 부계 직계 사령 이외에 시가 쪽의 방계 사령과 친정 쪽의 사령도 포함되고 또 사망한 아들이나 딸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세대적으로는 조부모와 같은 세대가 낮은 사령이 등장하고 4대조나 3대조가 등장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조상거리에서 등장하는 사령의 범위와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를 비교하면 양자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도 2대조보다 아래 세대인 비교적 가까운 세대의 사령이 대부분이며 또 시가 쪽의 직계 사령뿐만 아니라 시가 쪽의 방계 사령과 친정 쪽의 사령도 내려왔다.

임돈회의 조사는 경기도 지역의 굿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필자는 진도 강신무가 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에 대해 알아 본 적이 있다. 진도 강신무가 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의 범위와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 사이에서도 유사성을 볼 수 있다.

진도에서는 원래 집안에 무슨 재앙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의 하나로써 가족 등이 강신무를 찾아 점을 보고 원인을 밝힌 다음에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세습무들에게 굿을 부탁하곤 했었다. 강신무는 이전에는 점을 치기만 하고 굿은 실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 강신무들도 굿을 실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5월에 걸쳐서 사례에서 소개한 I가 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에 관해서 알아 본 적이 있다. 진도 무속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도 조상이라 불리운다. 진도 무속 의례에서는 조상들을 모시기 위한 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 상 위에는 술잔, 밥, 국 등을 모시는 사령 수에 맞추어 놓거나 지방을 붙이기 때문에 각 의례마다 의례를 의뢰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령들이 모셔지느냐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례에서는 모셔지는 사령은 의례를 의뢰한 집안의 사령들이고 각 집에서는 어느 사령에게 술잔 등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필자는 날받이 씻김굿(집안에 재앙이 생겨 점을 보니까 사령 중에 닳을 씻는 일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사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날짜를 정해 놓고 행하는 씻김굿) 2예, 성주굿(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했을 때 집의 수호신인 성주를 모시기 위해서 행하는 굿) 4예, 천도제(사망한 사람을 공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례이며 조상굿, 조상풀이라고도 함) 5예, 그리고 부탁거리(잡귀를 쫓아내는 의례)나 매기(악운을 막아내는 의례)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의례 5예, 모두 합쳐서 16예를 관찰하고 거기서 모셔진 사령의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1998: 81-96). 필자가 보고한 사례들을 다시 시가 쪽, 친정 쪽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각 사령의 숫자는 16의 의례 중 몇 번 모셔졌느냐를 나타낸다).

<표 4>를 보면 진도 강신무가 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은 조부모의 세대, 즉 2대조보다 아랫 세대의 사령이고 부계 직계 사령뿐만 아니라 부계 방계 사령 및 처의 친정 쪽 사령 그리고 의례를 부탁한 의뢰인보다 아랫 세대에 속하는 자식이나 며느리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진도 강신무가 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사령의 범위와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 사이에서도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와 무속 의례에서 다루는 사령의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진도 강신무에게는 한국 무속 문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령이 내려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특징

한편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과 한국 무속 의례에서 다루는 사령을 비교하면 대상이 되는 사령의 범위가 양자 사이에서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기도 조상거리에서는 시가 쪽 부계 직계 사령 외에 시가 쪽 방계 사령, 친정 쪽의 사령 그리고 자식들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 경우 <표 2>를 보면 부모의 세대보다 윗 세대에서는 방계의 사령은 거의 없고 직계의 사령만이 있다. 또 경기도 조상거리에서는 4대조나 3대조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는데 서울 강신무에게는 3대조보다 윗 세대의 사령도 많이 내려왔다.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와 무속 의례에서 다루는 사령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근년에 들어와서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오는 사령의 양상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측된다.

예를 들어 <표 2>를 보면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은 10대조, 7대조, 5대조, 3대조 등과 같이 특히 홀수 세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령들은 구체적인 개성이 있는 사령으로 보는 것보다 定型化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196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서 실시된 민속 조사에 관한 몇 가지 보고서에서 보이는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사례는 모두가 증조부 즉 3대조보다 아랫 세대의 사령이며 5대조나 7대조 등 먼 세대의 사령이 내려왔다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표 1> 참조). 2대조 혹은 3대조보다 아랫 세대인 비교적 가까운 세대의 사령이 내려오는 것이 사령이 내려오는 무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 추측에

따르면 본고에서 고찰한 진도 강신무가 서울 강신무보다 사령이 내려오는 무 본래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서울 강신무가 사령이 내려오는 무 본래의 모습과 다른 양상을 갖게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 여기서 명확한 대답을 낼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 보겠다.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도 강신무 경우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성무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에 비해 서울 강신무 경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해 온 후 서울에서 성무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에서는 강신무에게 의례를 부탁하려 오는 의뢰인들도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진도 같은 지방 사회(전통사회)에서는 지역내의 인간 관계도 비교적 긴밀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대의 사령이 강신무에게 내려오는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화제를 제공해서 강신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사는 서울에서는 인간 관계가 지방 사회만큼 긴밀하지 못해서 대도시에서는 강신무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근년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 강신무들은 한국 사람 누구나 유교 제사 등을 통해서 접하는 세대의 문제를 강조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또 서울 강신무 사이에서 내려온 사령에게 여러 가지 신 이름을 붙이는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신무의 시가 쪽이나 친정 쪽의 사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구체적인 신 이름을 가진 신령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신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천신이 내려왔다고 하는 강신무도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신무의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강신무들 사이에서도 사령이 내려온 무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천신이 수호

신령으로 내려왔다는 어떤 강신무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의 조상이 내려온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신령이 내려온다. 천신을 받는 것은 어렵다. 그 만큼 우리가 수행을 쌓아야 하고 수행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서 조상한테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 천신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로 봐서 천신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강신무들에게는 조상(사령) 밖에 내려오지 못했던 강신무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천신이 내려온 무가 사령이 내려온 무를 낮게 보는 것에 대항해서 사령이 내려온 서울 강신무 사이에서 사령에게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이는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내려온 사령에 관해서 서울 강신무에게는 세대의 상승, 직계 중시, 전통적인 신 이름의 채용이라는 세 가지에 있어서 진도 강신무와 상이한 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이유의 하나로서 강신무들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근년에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도 배경으로 해서 유교 제사에서 중시되는 세대 문제나 무속에서 전해져 온 전통적인 신 이름 등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 도시 샤머니즘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로서 접쟁이, 보살, 명두 등으로 불리우는 강신무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울 강신무와 진도 강신무에게 수호 신령으로 내려온 사령에 대해서 비교 고찰을 했다. 그 결과로서 서울이나 진도나 다 시가 쪽 및 친정 쪽의 사령이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몇 가지 상이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진도에서는 2대조보다 아랫 세

대의 사령이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서울에서는 3대조보다 윗 세대의 사령이 내려왔다는 사례도 많다는 점, 진도 강신무에게는 직계 사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계 사령도 내려왔는데 서울 강신무 경우 방계 사령은 진도 강신무만큼 많지 않다는 점, 또 서울 강신무 사이에서는 사령에게 구체적인 신 이름을 붙이는 일이 많은데 진도 경우 그러한 일은 많지 않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와 무속 의례에서 다루는 사령의 범위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진도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한국 무속 문화와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 강신무에게 내려온 사령의 범위와 무속 의례에서 다루는 사령의 범위는 다르고 사령에 관해서 서울 강신무에게는 세대의 상승, 직계 중시, 전통적인 신 이름의 채용 등이라는 특징을 지적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 도시 샤머니즘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신무의 신령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서울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는 강신무와 서울 강신무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곤

1981 『한국 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3 『한국 민간신앙연구』, 서울: 집문당.

박주엄·정종수

1988 “단골의 생활과 무계”, 『진도무속현지조사』: 136-166, 광주: 국립민속박물관, 전라남도.

임돈희

1988 “한국조상의 두 얼굴”, 『한국민속학』21: 133-171, 서울: 한국민속학회.

조홍윤

1997 『무-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 서울: 민족사.

최길성

1978 『한국무속의 연구』, 서울: 민속원.

1991 『한국의 조상숭배』(증보판), 서울: 예전.

佐佐木宏幹(사사키 고칸)

1996 『聖と呪力の人類學』(講談社學術文庫), 東京: 講談社.

佐藤憲昭(사토 노리아키)

1988 “都市のシャーマニズム”, 孝本貢編 『論集日本佛教史第9卷(大正・昭和時代)』: 267-292, 東京: 雄山閣.

安田ひろみ(야스다 히로미)

1997 “韓國の女性”, 綾部恒雄編 『女の民俗誌1』: 39-64, 東京: 弘文堂.

川上新二(가와가미 신지)

1998 “韓國의 巫俗儀禮において祀られる 祖先”, 『宗教學論集』20: 81-96, 東京: 駒澤大學宗教學研究會.

崔吉城

1980 『朝鮮の祭りと巫俗』, 東京: 第一書房.

1984 『韓國のシャーマニズム』, 東京: 弘文堂.

土佐昌樹(토사 마사키)

1989 “憑依の現在”, 『民族學研究』35(4): 374-398, 東京: 日本民族學會.

Laurel Kendall(로렐 캔달)

1995 “Shaman rituals in 1990' Korea: Who sponsors them and Why?”, 『國際文化交流シンポジウム・シャーマニズムと民俗文化』(심포지엄 발표 요지집): 6-8, 奈良: 奈良大學・(財)元興寺文化財研究所・ISSR.

A Study on the Guardian Spirits of Korean Shaman: Compare Seoul's Shaman with Chindo Island's Shaman

Kawakami Shinji

Most of Korean shamans are women. In most cases, their guardian spirits are ghosts of their parents' home and ghosts of their husbands' parents' home. Comparing Seoul's shaman with Chindo Island's shaman on the ghost, we will find some differences as follows:

1. Guardian spirits of Chindo Island's shaman are ghosts of the grand parents' generation or younger than grand parents' generation. But in Seoul, not only above ghosts but ghosts of the great-grand parents' generation or older than great-grand parents' generation also become guardian spirits.

2. Not only lineal ghosts but collateral ghosts also become guardian spirits in Chindo Island. But collateral ghosts seldom become guardian spirits in Seoul.

3. Seoul's shamans call their ghosts by the name of god, such as mountain-god(san-sin), seven-star-god(chil-sseong-sin), dragon-god(yong-sin), general (jang-gun), master(do-sa), etc. But few shamans call their ghosts by the names of god in Chindo Island.